

현주간지 3월호 정오표

#정오표

현주간지 3월호 정오사항 전체를 올립니다.
이 정오표를 꼭 확인하시고 공부에 참고해 주시고,
코리안에듀 콘텐츠팀은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올바른 편집에 신경쓰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https://class.orbi.kr/teacher/181/question> 에 몇월호 교재인지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선생님에게 개별 문의가 있을 시에는
you@korean-edu.co.kr 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안에듀 대표 유현주-

2024. 3

- p.60
- p.83

01

정답해설

④ (라)에서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강조하지 않았다.

오답해설

- ① (가)의 종장에서 저 '물'이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간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슬픔을 표출한 것이다.
- ② (나)에서 화자가 '초객'과 '가 태부'와 같은 역사적 인물들에 자신을 빗댄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 ③ (다)는 긴 밤의 허리를 잘랐다가 님 오신 날에 떠나겠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외로운 심경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마)는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던다' 등에서 '너'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2

정답해설

③ (다)는 기생이 지은 조선 전기의 평시조로, 우리말로 된 음성 상징어인 '서리서리'와 '구뉘구뉘'를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사설시조인 (마)도 역시 '수기수기'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간적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는 이후 창작된 갈래인 (마)와 유사하다.

오답해설

- ① (가)는 사대부가 지은 평시조이다. 조선 전기에는 사대부 계층이 시가의 창작과 향유를 주도했고 일부 기생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다)와 같은 작품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로 인해 사설시조가 파생된 것은 아니다. (마)는 서민들에 의해 조선 후기에 활발히 창작된 갈래이다.
- ② (다)는 기생인 황진이의 평시조로, 조선 전기 사대부가 지은 (가)와 동일한 갈래이다. 사대부들은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면서도 자신들의 특수한 처지와 의식을 반영했지만, 기생은 (다)와 같은 작품을 통해 보편적 층위에서 사랑과 이별을 노래했다.
- ④ (마)는 평시조인 (가)의 형식을 계승하되 특정 부분이 길어진 사설시조이다. '무쇠로 성을 뺀고 성안해 담 뺀고 담 안해란 집을 짓고 집 안해란 두지 노코' 등에서 나열과 연쇄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표현한 것일 뿐, 임금을 향한 충심을 장황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 ⑤ (마)는 서민들에 의해 조선 후기에 활발히 창작된 갈래이다. 임병양란 이후 전문 소리꾼이 등장하여 조선 후기에 활발히 가창될 수 있었던 갈래는 (마)가 아닌 (라)이다.

03

정답해설

② (나)에서 ⑥는 임에게 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대변하는 대상이다. 한편 (라)에서 ①는 화자와 임 사이를 시샘하는 대상이다.

로,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① (나)에서 ②는 임이 계신 곳이면서 화자는 찾을 수 없는 곳을 의미하므로, 임과 화자가 이별하는 장소가 아니다. 한편 (라)에서 ①는 화자가 '일미인'과 처음 만나는 장소이므로, 임과 화자가 재회하는 장소가 아니다.
- ③ (나)에서 ③는 화자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두견의 녀'가 되어 오르려 하는 곳이므로, 화자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라)에서 ①는 화자가 임과 만나서 느끼는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화자의 욕망을 좌절시키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나)에서 ④는 임과 이별한 화자가 '흉중에 쌓인 말씀'을 임에게 전하기 위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한편 (라)에서 ⑤는 '취와 주란 높은 집'에서 '일미인'이 손님을 맞기 위해 갖춰 입은 옷이므로, 임의 안위를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 ⑤ (나)에서 ⑤는 화자의 심회를 돋우는 자연물일 뿐, 임에 대한 화자의 불신이 심화되는 계기가 아니다. 한편 (라)에서 ⑥는 임에게 '춘흥'을 자아내게 하는 대상이므로, 임과의 애정을 돋우기 위한 수단일 뿐 화자의 고독감이 심화되는 계기가 아니다.

04

정답해설

② ①을 바탕으로 할 때 (나)는 조선 전기에 사대부가 창작한 작품으로, 임과의 이별을 노래한 이면에 임금을 향한 자신의 충정을 담아내고 있다. (나)의 '흉중에 쌓인 말씀'은 화자가 임에게 전하지 못한 것으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예찬한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 ① 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는 금부도사였던 왕방연이 단종을 유배지에 두고 오는 길에 지은 평시조로, 사대부 계층의 특수한 처지와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임이 있는 곳에 대한 거리감을 나타낸 '천만리 머나먼 길'에는, 단종의 유폐를 안타까워한 사대부 계층의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①을 바탕으로 할 때 (다)는 기생 황진이의 평시조로,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인간적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의 '한 허리'는 동짓날 긴긴밤의 일부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으로, 이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그려 냈던 기생 작품의 일면을 보여 준 것이다.
- ④ ①을 바탕으로 할 때 12가사 중 하나인 (라)의 바탕으로는 사랑은 새로 사귀 사람과의 짧은 정이며 이별도 유흥의 끝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라)의 '신정'은 새롭게 사귀 정, 즉 유흥 공간에서 만난 임과의 짧은 정을 나타낸 것으로, 창작과 향유의 저변이 넓어지면서 이전과 달리 사랑을 가볍게 다루기도 한 조선 후기의 변화 양상을 반영한다.
- ⑤ ①을 바탕으로 할 때 사설시조인 (마)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과장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구사하여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솔직하면서도 해학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마)의 화자는 일상적 소재인 '옹 거북' 모양의 자물쇠로 꼭꼭 잠긴 께 안에 갇혀서 오지 못하느냐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 특유의 미의식을 구현한 것이다.

01

정답해설

- ③ 행동 묘사와 인물의 말, 그리고 서술자의 묘사로 세 인물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고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이 복덕방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으므로 ㄱ, ㄴ이 적절하다. ㄷ과 ㄹ은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02

정답해설

- ⑤ 딸이 유성기를 구매할 정도로 부자인 것은 맞지만, 안 초시는 이런 저런 사업을 하다가 돈을 잃은 것으로 딸을 위해서 희생한 것은 없다.

오답해설

- ① 드림전은 근대화에 따라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안 초시는 자신의 엄지 손가락에 운수를 가능해 보는 등 실패를 자기 운수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참위 출신이지만 그 이후 오년 간 직업을 얻지 못하고 전전했다는 본문의 서술을 보면 서 참위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부동산 값이 크게 올라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던 서 참위도 돈을 크게 벌 수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④ 맥락을 통해서 대서방을 차리기 위해 일본어를 익히는 박희완 영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다.

03

정답해설

- ③ 안 초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적은 재산보다 한 탕 크게 벌 수 있는 금광을 더욱 선호하며 운수에 기대는 인간형이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해설

- ①, ② 사소하게 복덕방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한 번에 큰 돈을 벌기 원하는 안 초시의 반응이라고 보기 적절하다.
- ④, ⑤ 화투패를 매일 복덕방에서 떼어 보며 돈은 벌지 않고 어디서 돈이 구해지기를 기대하며 운수를 짐작하고 있는 안 초시의 반응이라고 보기 적절하다.

04

정답해설

- ④ 일본어 교재를 삼국지 읽던 투로 읽는다는 것은 박희완 영감의 일본어 실력이 미숙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마지막으로 남은 돈이기 때문에 아쉬워 하는 것이지, 죽음을 앞둔 두려움과는 상관이 없다.
- ② 엄지손가락의 생김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의 운수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탓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서 참위는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가난한 처지를 비판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 ⑤ 잔 글자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희완 영감이 속수무책독본을 열심히 펴 보았다는 의미이지, 인쇄 상태와는 관련이 없다.

05

정답해설

- ②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야 살 수 있다는 뜻이므로 '살기가 어렵다고 쉽사리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을 뜻하는 '산 입에 거미줄 치랴'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살기 위하여 하지 못할 일까지 하게 된다는 말이다.
- ③ 몹시 고생하는 사람도 운이 트일 날이 있다는 말이다.
- ④ 우연히 한 일이 뜻하지 않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 ⑤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